

시대 흐름을 바꾼 한 여인의 기도

사무엘상 1:10-20, 누가복음 1:5-20

최정웅 목사님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계속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 오늘은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을 위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다. 그것도 육신적인 갈등과 고민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1.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진짜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 겉데기 문제다. 그 속에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것을 볼 수가 없다.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1) 강대국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모든 수확물을 빼앗아갔다. 계속 와서 죽이고 빼앗아가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현장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없었다.

(2)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온 백성, 특히 그 후대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 문화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문화가 있었다. 블레셋에는 다곤 우상 문화가 있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오랜 우상 문화가 있었다. 이 우상이 이스라엘로 파고드는데, 문화를 타고 들어오니까 막을 길이 없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시는가? 이사야 42:8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경배가 사탄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못 하게 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틈을 타게 된다. 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에 깊이 문화가 되어서 들어왔으니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사람이 없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문화를 타고 들어오니까, 문화를 쉽게 따라가는 후대들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3) 강대국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상을 막아야 하는데, 이것을 해야 할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와의 제사를 무시했다. 심지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3:1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잠언 기자는 이상이 없는 민족은 망한 민족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교회가 천명, 소명, 사명을 놓쳐 버리니까 어려움이 온 땅에 온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가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강대국 문제, 우상 문제, 교회 문제가 그 당시 시대의 큰 문제였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강대국을 살리지 못하면, 그 강대국 때문에 재앙이 들어닥치게 된다. 우상과 우상 문화를 막지 못하면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는 저주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과 세계 교회는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오늘 당회에서도 이야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난민들이 200만 명이 유럽으로 들어갔다. 지도자들이 저 난민들이 불쌍하니까 받아주자 해서, 인자한 마음으로, 세계주의를 가지고 받아주었다. 그래서 저 무슬림 200만 명이 유럽으로 물밀처럼 들어간 것이다. 지금은 불쌍해서 받아주었지만, 저들이 가지고 간 것이 이슬람 신앙 아닌가. 여러분, 역사를 배웠지 않나? 코란을 받든지 아니면 칼을 받으라고 하면서 세계를 정복해간 자들이다. 그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의 숫자가 거의 비등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판세가 바뀌게 될 것이다. 지구는 두 문명의 부딪힘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헨팅턴의 말이 적중해가고 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본문 시대의 문제와 같은 것이다. 정말 고민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도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 이 문제를 정말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우리 모두가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강대국 문제, 우상 문제, 교회가 사명을 잃은 문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영적 문제, 내면적인 문제다.

2. 이 문제를 보고 기도를 바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어려운 시대의 진짜 문제를 본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문제를 실감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한나의 이야기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다.

(1)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의 부인이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난당하고 외롭고 힘들었다.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한나를 괴롭혔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꺾박하고 어려움을 줬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들을 낳는데 왜 나는 아들을 못 낳는가 싶고, 자기를 무시하는 브닌나가 미우니까,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다. 왜 그런가? 기도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한나는 육신적인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기도했다. 비교의식 때문에. 저 여자보다 내가 못하다는 억울함, 내가 지는 것에 대한 억울함, 앞서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기도했다. 분풀이 기도를 한 것이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계속한 것이다.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너무나 육신적인 기도였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 육신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육신적인 기도였다.

(2)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보이게 되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기 어렵고, 문간에 앉아서 즐기고 있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은 제쳐놓고 불의와 불법과 범죄를 일삼았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대의 진짜 문제를 보고, 한나가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전에는 외로움, 고통, 억울함을 풀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전에 보지 못했던 시대와 사회의 문제를 보게 된 것이다.

(3) 이때부터 한나가 기도의 제목을 바꾼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망해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나실인 운동이다. 한나가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제목은 바꾸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아들에 대한 기도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한나가 무엇을 보았는가? 이 시대에 남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 것이다. 남자는 많은데 강대국 살릴 사람, 우상과 싸울 사람, 교회 살릴 사람이 없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나실인 운동이구나, 이 시대에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 우상과 싸워서 재앙을 막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 교회를 살리도록 말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 아이를 내게 주십시오.” 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는데, 이 타락을 막기 위해서 구별된 자, 남은 자가 필요하다. 세상이 다 우상에 빠져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않고 그것과 싸울 구별된 자, 남은 자가 일어나야 한다.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4)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기도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램넛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는 뜻이다. 올바른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응답으로 태어난 램넛트가 사무엘이었다.

(5)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이 자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삼상3:19).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전체가 일어나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한나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한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혹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무엘은 시대를 살린 임금인 다윗을 세우고, 언약적 한을 전달하는 증거가 남게 되었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사무엘 같은 램넛트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에게 갈등이나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이다. 한나가 다른 사람들처럼 아들을 쉽게 낳았다면, 시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나의 문제는 사무엘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계획이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내 문제를 넘어서 시대의 문제를 보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무엘 같은 램넛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램넛트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말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그 응답의 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자. 우리 후대가 나실인으로 준비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나실인 운동으로 나라의 재앙을 막고,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한국과 세계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모든 부모와 교사, 모든 성도들이 후대운동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한다. 골로새서 3:1-2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실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 한 여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한 여인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결국 그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나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치해 주옵소서. 지배해 주옵소서. 지금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역사와 인도 속에 우리가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